

<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

요한복음 1:9-13 / 통일찬송가 467장 내게로 와서 쉬어라

1.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즉 창조, 구원, 섭리 등이 다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하다는 것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로 꼭 들어차 있어서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활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신비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집니다.

그 신비 중 가장 놀라운 신비가 ‘거듭남의 신비’입니다(요3:6-8).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신비여서 마치 소리는 있으나 어디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2. 거듭남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진 자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요 1:13).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서 이뤄진 일입니다(엡1:3-6). 예정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낳으신 바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돌이킬 그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사용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3.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존재와 달리 태어난 존재는 자신을 낳아준 존재와 같은 본질을 갖고 그 성품도 닮게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랑을 하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오직 사랑만을 추구하며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고 희생할수록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 그 모진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다. 실로 신비한 사랑입니다 <복음성가 갯세마네 동산에서> .

주님은 이런 희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요1:12).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의 적극성으로 우리에게 악한 영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눅10:19). 이제 병든 우리를 고쳐주신 데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남의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눅9:1).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사망을 이기고 물리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고전15:49,50). 즉,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즉 사망을 이기는 권세도 얻게 됩니다(고전15:54,55).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으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신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써 살아가고 있습니까?